

Mission • Venture • Partners

벤처선교

네 권역의 미래사역을 이야기하다


www.MV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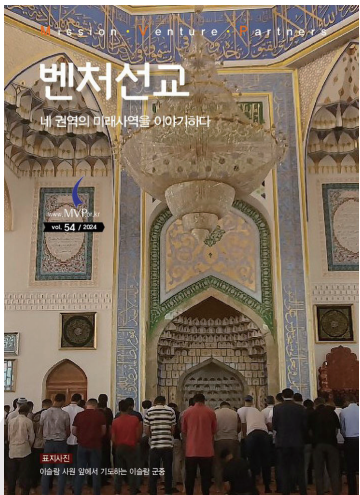
vol. 54 / 2024

표지사진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무슬림들

Contents

벤처선교 (통권 54호) 2024



이 사 장 | 신동우
고 문 | 서동현, 지경준, 홍성원, 한정국
실행이사 | 한인택
권역이사 | 최석범
명예이사 | 최석범

대 표 | 이 길
멤버케어 | 김인애
벤처사업개발원 | 이응복
미 디 어 | 김기덕, 전세희
훈련동원 | 김계바
본부간사 | 이동호, 강유진

발 행 인 | 이 길
편 집 인 | 김인애
편집 • 디자인 | 김귀곤(윤디자인)

발 행 처 | MVP선교회
발 행 일 | 2025년 1월 20일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4 덕성빌딩 5층
전 화 | 02)703-1215, 팩 스 | 02)703-1216
이 메 일 | mvpok01@gmail.com
홈페이지 | www.mvp.or.kr



MVP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의 꿈을 품은 이들이 모험, 도전,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시작한 최전방개척선교회입니다.

• Mission • Venture • Partners

003 여는글

• 혼돈 / 이길 3

007 포커스

• MVP 2025 / 이길 4

• 선교에 있어서 교회 사역의 중요성 / 한수아 7

• 전화위복의 2024년을 돌아보며 / 허드슨 10

013 현장사역

• 전쟁의 화약고가 아닌
복음의 화약고, 레바논 / 신수아 13

• 미얀마 주일학교 / 누사베 15

• 카무카무 우에,
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 / 함윤숙 18

• 다문화가정 어린이 사역 / 이복애 22

• 돌아보지 않는 삶 / 최현희 24

027 MVP 행사

• 행사 및 광고 -
동참해 주세요 / 27

028 단기선교사 소개

•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 이종민 28

•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 우원빈 29

030 MVP 소식

• SVM 훈련을 마치며 -
'속았다'에서 소망으로 / 김지희 30

• SVM 훈련을 마치며 -
선교에 대한 마음의 벽이 낮아지다 / 이마자 31

• MVP 권역 소식 모음 / 32


... 여는글 ...

혼돈!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를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의 상태”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를 묘사하는 의미로 “이것저것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가 혼돈의 상황이며, 혼돈의 시기로 보인다. 비단 이런 혼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에 따른 변화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일어날 수많은 변화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가 될 것 같다. 더불어 이런 모습은 국가나 나라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있는 선교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다.

이렇게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시기에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보고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암울한 시기에 역설적으로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MVP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를 잠시 정리하는 글들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열심과 그 열심에 수고로이 순종하는 귀한 발걸음을 함께 보고 감사하며, 더 힘을 내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혼돈!

어쩌면 이 단어는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 생각해 보며,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명확한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회에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선교의 영역에 하나님이 펼치실 그분의 역설(Paradox)을 기대하며, 귀한 글 속에서 그 희망과 기대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길 대표

MVP 2025

이 길 대표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굳이 선교사가 아니어도 느끼고 알 수 있을 법한 일이다. 현장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다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낀다. 한국 사람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 울지도 웃지도 못할 그런 시간을 보내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을까!'를 되뇌어 본다.

딱히 무엇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시간은 가고 머리는 복잡하고 분주한 것만 같은 것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본부를 찾아오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현장 소식을 들으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마음을 다 잡아 보게 된다.

2025년 새해, MVP 선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인가?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모인 인위적 공동체가 아닌 사명 공동체다. 그러므로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현장과 우리 삶에서 감당할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선교단체로서 선교 자원을 동원하여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 점에서 본부가 힘써야 하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선교단체마다 선교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려 보니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본부는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현장의 필요를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한마디로 현장의 필요에 적합한 동원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기회가 되는 곳에 가서 본인에게 맞는 사역을 찾으려는 자원들은 거의 없다. 이제는 본인들의 역량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적합한 곳을 찾으려는 자원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이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본부는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필요한 영역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원들을 동원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상황에 적합하게 맞춰가야 할 것이다.

미전도종족을 타겟하여 전방개척선교를 지향하며 MVP가 걸어온 길이 어느덧 25년이다. 그동안 벤처 미션이라는 우리만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인 사역들을 치열하게 펼치며 열방에서 수고했고, 그 수고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 많지 않은 멤버들이 있음에도 우리 안에서 느끼는 친밀감과 소속감이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 함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달된 IT기술의 힘을 빌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고, 사역의 고민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마중물로 선교사 지속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오래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였던 MCE(MVP Continuing Education)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고 미루어 온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이 선뜻 좋은 느낌을 갖게 하지 않지만, 그냥 만나는 모임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주제로 강의로 듣고, 우리의 생각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외부 강사도 초빙하고 우리 안에서 좋은 자원들을 발굴하여 선교 현장과 자기 계발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우리 멤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공동체적으로 친밀감, 소속감을 더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기에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 신선함에서 익숙함으로 나아가 정겨움이 묻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삼겹줄이 외줄보다 강하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강한가 약한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조직이나 단체가 삼겹줄로 묶여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선교회는 어떤 모



습일까? 개인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이기에 결론적으로 몇 줄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 줄을 더 첨가하고 싶다. 짧은 시간 본부를 섬기며 느끼는 것은 우리를 응원하고, 힘과 용기를 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줄이 없음을 보게 되었다. 그런 줄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있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울 수 있는 손들을 하나 둘 모아보려고 한다. 이들을 MVP선교회 서포터스로 부르며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자로 삼고 싶다. 여러 모양의 서포터스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손, 찬양하는 입술, 영상을 만들고 브로셔를 제작하는 기술, 우리 선교회의 사역을 알리는 입과 발걸음, 행사를 돕는 마음과 손 등의 많은 영역에서 서포터스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지 않고 움직인다면 또 다른 모양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 동행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 보고 싶다.

최근 MVP 선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단체장들의 모임이나 주변 선교사들로부터 종종 듣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경청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 또는 그런 판단의 소리에 흔들리거나 신경을 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소리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MVP 선교회가 한국 선교에 이바지해야 할 몫이 여전히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하는 듯 하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드라마를 펼쳐나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동일하게 본부를 통해 펼칠 하나님의 드라마를 기대하며,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싶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사역의 중요성 : 사역회고와 사역계획

한수아 선교사

저희(한수아/임하경 선교사)는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카작민족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주된 사역은 교회사역, 트라우마힐링, 그리고 이슬람연구의 세가지 사역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역들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관계상 교회사역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교회사역에 집중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한다. 선교사는 자신이 교회개척사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교회개척을 하든, 현지인을 통한 개척을 하든, 혹은 기존교회에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즉 교회사역을 할 때 올바른 교회론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사역의 핵심 과업이기 때문이다. 독립된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저명한 조직신학자 스탠리그랜츠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즉 인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공동체 건설은 인간의 삶에 많은 측면들 속에서 일어나지만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에 초점은 교회 즉 예수의 제자들의 교제이다”

2001년 타임지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했던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우리는 교회가 곧 선교라고 믿는다.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일을 하라는 그 요구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자라도록 힘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교지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선교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산 위의 동



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된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것, 그 자체가 선교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활동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상사명으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자삼기를 가장 중요한 선교과업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주요 수단이다. J.T 잉글리시는 “지역 교회는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빚어내고 양육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드신다”고 지적한다.

결국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교회를 세우되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시연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선교사는 그 일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카작 민족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바캇카이나르(복의근원) 교회를 개척한지 7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사역에 힘을 쓰는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교회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사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교회활동은 예배와 말씀, 그리고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목장모임이다.

우선 예배에 대해서는 제임스 스미스가 말했듯이 교회의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는 독특한 공간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활동하신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자 활동의 장소이다.

“매 주일 모임은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깊은 제자 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일 모임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설교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한다.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J.T 잉글리시) 그러므로 현지인 신자들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도록 돕는 것은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길러내는데 중요한 자원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현지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선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몇 개를 개척하고 몇 명이 모이느냐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리더청소년수련회24, 장년목장모임, 청년목장모임, 성경공부모임을 통한 그 현지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근거한 올바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바캇카이나르 교회에서 한수아 선교사가 주로 설교하지만 현지인 목사를 불러서 설교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도자급 되는 사람도 제대로 말씀에 입각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그 현지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인 신자들이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무슬림 배경의 초신자들이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인 신자들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제자란 바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수를 받은 목사나 유급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전부터 휴스턴침례교회의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역하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4년에도 우리는 교회사역에 힘을 기울였으며 그 중에서도 예배와 말씀과 목장모임(리더 세우기)에 집중했다. 물론 그 외에도 전도나 심방, 상담과 권면, 지체들의 다양한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는데도 많은 기도와 시간을 들였다. 그러나 위의 세가지 활동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보고 그 일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2025년에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5개월의 안식월을 마치고 2025년 1월 현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사역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일들(교회사역)을 이제 현지인이 중심이 되어 하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교회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교회를 이끌어 갈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기를 원한다.

또한 사역 대상에 있어서 중국 카작족 사역에 보다 힘을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섬기는 바캇카이나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다음 사역 임기 내에 중국 신장에 있는 카작족에게 선교하는 일을 교회 차원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신장에 단기선교를 가고 그곳의 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바캇카이나르 교회가 카작민족을 위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나라를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저희가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이양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사역에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란다. 



전화위복의 2024년을 돌아보며

허드슨 선교사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6년간의 온라인 사역의 핵심인 페이스북 사역에서 동영상의 Copyright이 문제가 되어 페이지가 차단될 위기가 있었고, 난민학교의 이사 또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사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민학교를 이사하고 수단 난민아이들이 100여명으로 늘어났고, 온라인 사역의 위기로 영상과 사진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미디어팀이 형성되었다. 이제는 아랍의 각 국가별로 맞춤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고 있다. 위기가 올 때는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기도하면서 극복했을 때 더 큰 축복을 경험한 한해였다.

수단난민학교 이전과 본격적인 사역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수단내전으로 수단난민들이 50만명 가까이 난민으로 유입되었다. 2022년부터 20여명으로 시작된 수단난민학교는 순식간에 1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급하게 큰 장소로 이전을 했고,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셔서 난민학교는 감사히 잘 운영되고 있다. 큰 장소로 이전을 하면서 의자, 책상, 에어컨, TV 등등 필요한 물품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매달 30여 가정에 푸드 박스를 전달하고 있고, 아이들의 간식을 매주 제공하고 있다. 수단난민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수영장이어서 지난 여름 수영장을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던 기억이 난다.

터키 아웃리치 사역

2024년에는 이집트 사역자들과 2번의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튀르키예에는 400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아웃리치를 가기전에 미리 페이스북으로 복음광고를 여러 번 했고, 복음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감사하게 많은 시리아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연결되었다. 9월에는 레바논 아웃리치도 계획했지만, 레바논의 전쟁으로 무산되었다.

온라인 복음광고와 미디어팀

2019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복음광고 사역은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2024년에도 아랍어를 사용하는 모로코, 모리타니아, 이라크, 예멘, 튀니지, 알제리, 레바논 등의 아랍국가들에 복음광고를 이집트 현지인 미디어 사역팀을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복음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집트 청년수양회

중동의 아랍23개국의 복음화율은 아직도 너무 낮다. 이 지

역23개국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이며 이집트의 기독교청년들은 중동의 중요한 선교자원이다. 이집트 청년들이 중동의 지도자와 선교사가 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수양회를 가졌다. 2019년부터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개최되었다. 2024년 7월에는 이집트 청년 100여명이 모여서 3박4일동안 수양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매년 이러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 페이스북 사역보고



이제는 아랍의 각 국가별로 맞춤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고 있다. 위기가 올 때는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기도하면서 극복했을 때 더 큰 축복을 경험한 한해였다.


수단난민학교 이전과 본격적인 사역, 터키 아웃리치 사역, 온라인 복음광고와 미디어팀, 이집트 청년수양회, 2024년 페이스북 사역보고 등 이러한 위기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사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2025년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 팀에는 이집트 풀타임 사역자가 6명과 파트타임 사역자 3명으로 총 9명의 현지인 사역자가 있다. 2024년에 감당했던 수단난민사역, 온라인사역, 아웃리치사역 그리고,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미션플랜팅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대략 3800여년 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요셉은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을 알고 준비했다. 요셉이 7년의 흉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한 것처럼 2025년은 그러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중동은 이미 많은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의 전쟁이 있었고, 이란과도 서로 폭격이 있었다. 수단, 리비아, 예멘, 그리고 이라크까지 내전상태이다. 또한 몇일 전에는 50년이 넘는 시리아의 알바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앞으로 시리아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중동의 상황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 팀들은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동시에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이다. 4000여년전에 요셉이 중동지역의 대흉년을 지혜롭게 대처한 것처럼 우리도 2025년에 시작되는 흉년과 같은 위기들을 극복하는 요셉의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사역 1

전쟁의 화약고가 아닌 복음의 화약고, 레바논

신수아/윤사랑 선교사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레바논에도 희망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폭격 소리와 드론의 굉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은 레바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종파적으로는 다르지만 둘 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모두의 공동의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2024년 9월 말부터 이스라엘은 두 달간 집중 포격을 쏟아부었고 군대를 진입시킴으로써 레바논을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두로, 시돈, 베이루트, 그리고 베카 지역에 가해진 폭격과 공습은 어마어마 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자 한국 사역자들은 긴급 연락망을 통해 폭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정보, 경고문, 사진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위치와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은 기독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공습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막연했던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 10월 초 대한민국에서 군 수송기를 베이루트에 보내 100여명의 교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10여명의 선교사들은 베카 지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내 양떼를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때마침 워싱턴예수사랑교회에서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 현금을 보내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긴급 구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쌀, 기름, 설탕 같은 기본 식료품을 차에 가득 싣고 피난민 가정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것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 사이의 아들룬에서 피신해 베카의 알까파르 자바드로 온 몇몇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던 중, 한 연장자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후 그분을 몇 차례 더 만나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쿠르드어로 찬양하며 드린 예배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한 번은 식량을 전하던 중, 한 쿠르드 사역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다 떠났는데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곳에 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저를 보며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르핀이라는 소녀는 두로에 사는 쿠르드 사역자의 조카인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형묘 같은 것을 먹거나 갑자기 정신을 잃곤 하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몇 번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가 결국 베이루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맘에게 돈을 내고 고침 받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라며 무거운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베르핀은 멀쩡히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누워 버렸습니다. 저희는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아버지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베르핀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이제 네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렴.” 베르핀은 지금까지도 기쁨 속에서 베이루트의 한 교회에 출석하며 새롭게 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리폴리라는 지역은 이슬람 수니파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시아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와의 종파적 차이로 이스라엘의 폭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곳에 피난민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을 때, 우리는 많은 가정을 찾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트리폴리 침례교회와 협력해 한 달에 두 번씩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좁은 골목과 상점들로 이루어진 트리폴리 거리를 걸으면서, 과거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기억이 떠

올라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던 이들이 이제는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음과 폭격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피난민 여성들이 예수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더 깊은 신앙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카티자와 니하드 부부는 이들이 PKK 게릴라들에게 붙잡혔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뒤, 복음을 듣고 깊은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전히 죽음과 전쟁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희망의 씨앗은 폭격의 굉음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은 부흥의 불길이 타고르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고르고 있습니다. 폭발의 굉음과 혼란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그런 소리 너머에 찬양과 기도의 울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MVP

미얀마에서 주일학교를 세워가다

누사베/황재석 선교사



미얀마에서 불교는 삶 그 자체다. 아이들은 한 살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 불교 수업에 참여하고 조금 더 성장한 후에는 일정기간 작은 승려로 살아가기도 한다. 미얀마의 어린아이들에게 불교는 종교이자 문화다. 어느날 한 아이에게 “부처가 너에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 아이는 “부처는 미얀마 전체의 신이고, 자신의 종족인 버마족은 당연히 불교도”라고 했다. 무슨 종족인지를 물어보면 불교도라고 대답하는,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도 버마종족으로 알아듣는 뻘속까지 불교도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늘 고민이다. 이미 불교도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혹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어린 시절 한 두번 친구랑 교회 갔”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어린이 사역에 매진하게 된 데에

는 아직 말랑말랑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불교만이 그들의 종착지가 아님을,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린 시절 교회 뜰이라도 한번 밟아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픈 마음에서다.

우리 가정은 미얀마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며 주일학교 교육 연구소를 만들어 몇몇 선교사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일들을 감당해오고 있다. 2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48개 교회의 주일학교를 세우는 팀사역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 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공덕을 위해 행한 일이라고 배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더 쉽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에 적응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공과를 만들고, 계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치적인 혼란가운데 있었던 미얀마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고 등교거부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금은 다소 회복되어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 시기 미얀마 교회는 학교 역할을 자처했었다.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게 했고, 청년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소박한 점심 한 끼 만들어 먹였다. 이 작은 섬김에 이 땅의 정치적인 회복을 바라는 한국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그 시기 많은 아이들이 교회 뜰을 처음으로 밟았다. 하지만 한 두 번 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보면서 일단 교회에 온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나오

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 불법인 미얀마에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귀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고민하다가 새신자반을 만들기 하였다. 이를 위해 새신자반 교사교육을 하고, 교재를 만들고, 운영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새신자반의 중요성을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의 반짝이는 눈을 마주 할 때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기임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우리의 사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교육이다. 내전기간 동안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까지 늘어난 주일학교 학생들에 비해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단 기간에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버거웠지만 기쁨이었다. 미얀마 교회학교 교사들의 80% 정도는 공장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다. 미얀마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곧 대입 수능시험이며 시험을 치루는 학생의 30%만

이 합격을 한다. 대학교 수가 워낙 적다보니 대학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일학교 교사 수도 매우 적다.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다. 물론 이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지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연구한 후에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다. 현재까지 매해 2번의 교사 강습회를 해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교사를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리 사역자들 또한 청년시절에 주님을 만났기에 주일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2024년 7월부터는 소수로 진행되는 교사 세움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공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일학교를 운영해야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보라봐야 하는지, 절기교육과 더 나아가 그들의 요청에 의한 미디어를 다루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교회의 대표로 프로그램에 참석한 교사들이 즐겁게 배우고, 각 교회에 돌아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교회의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는 동료 선교사들과는 선교사가 앞에 서지 말고 현지인들을 세울 것, 현지인 사역자들의 자립을 염두에 두고 사역할 것을 처음부터 약속했다. 실제로 한국 선교사 3가정이 동시에 현장을 비워야 하는 시기에 진행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몇 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현지인 사역자들이 너무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보면서 머지않아 선교사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 한명의 회심자를 찾기 힘든 버마종족의 아이들이 교회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교단 내 신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한 명, 두 명뿐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이 미얀마 교회의 헌신된 일군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종족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장하는 날이 올 것을 꿈꾸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 

카무카무 우에, 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

함윤숙 선교사



내가 살고 있는 우간다에는 아름답기로 우거진 망고 나무가 많다. 단기선교를 온 어느 학생이 길가에서 있는 엄청난 망고나무를 보며 커다란 브로콜리 같다고 말해서 박장대소한 기억이 있다. 내가 어릴 적 방학이 되면 바쁘신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을 외가댁으로 보내셨는데, 감나무가 많았던 외할머니댁에서 놀았던 기억 때문인지 나는 망고나무를 볼 때마다 감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익지도 않은 뽕디 뽕 감을 따서 먹기도 하고 감나무에 올라가 술래잡기를 하기도 하고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 옆에서 구경을 하기도 했다. 우간다에 와서 바로 그 추억의 장면들이 망고나무 아래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학교(쿠미대학교) 망고나무 아래에서는 책을 읽고 담소를 나누고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심지어 강의장으로 쓰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주일 아침 망고나무 아래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모이는 주일학교 모임이었다. 쿠미대학교 교직원들의 자녀는 물론 학교 주

변에 사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쿠미대학교 주일학교는 어른들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망고나무 아래에서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었다. 당시 대학교의 교목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주일학교를 인도하셨는데 70-100명 남짓한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활기가 넘쳤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로부터 초등학교 7학년까지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보기에 어린아이들이 더 어린 동생들을 엮고 챙기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에겐 그것조차 사랑스러웠다. 애초에 우간다 쿠미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남편과 나는 우리의 나이를 고려해 길어야 10년 정도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자훈련과 성경공부에만 전념하기로 계획을 했었다. 늦은 나이에 선교지에 와서 흔히들 하는 구제사역이나 교회개척까지 하는 것은 우리 역량으로 역부족이기도 하려니와 한정된 시간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막상 이곳에 와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다. 막대한 결혼자금*이 있어야 정식 결혼이 가능한 우간다는 결혼자금을 모을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남자들이 맘에 드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다가, 또 다른 여자가 생기면 자녀가 있어도 책임지지 않고 쉽게 여자를 버리고 집을 나간다. (*다우리 제도-남자가 소나 가축으로 값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 일부다처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한 집에 여러 아내가 함께 모여 살기도 한다. 이복 형제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 현실이다. 한 집에 8-10명 정도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사치에 가깝고, 어린이의 인권 유린은 심각하기 그지없다. 교육상황도 만만치 않다. 7년제인 초등교육제도를 가진 우간다에서 공립학교의 저학년은 책걸상이 없어 흙바닥에 앉아 수업하는 상황은 흔한 일이고, 교실 공간이 없어서 망고나무 아래 모여 공부를 하기도 한다. 교과서를 개인이 가질 수 없고 그룹별로 한 권씩 교과서를 공유하면서 이마저도 학교에 두고 다

닌다. 구전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간다에서 학교 교육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배움의 주 도구다. 그렇게 별다른 학습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침도 먹지 않고 보통 2시간쯤 걸어서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에게는 집에서 가족을 먹이고 농사일을 돕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우리 이웃집 헬렌에 아이들이 돌아가며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목격한다. 귀한 농산물을 원숭이로부터 지키기 위해 집에 남아 원숭이를 쫓는 일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종종 시장을 가거나 일을 보러 타운에 나가면 아이들은 사탕을 요구하거나 나의 신발과 옷을 벗어 달라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선교사로서 내가 이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찢어지고 낡은 티셔츠와 짝이 맞지 않은 신발을 신은 아이나 아예 맨발인 아이들을



보면 딱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일상이 이러다 보니 내가 한두 번 벗어준다 해도 계속 감당할 수도 없고 좋은 방법도 아니라는 조언을 선배 선교사들로부터 들으면서 가난한 아프리카 우간다의 사역자로서 나는 아이들에 대한 과제를 점진적으로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게 되었다.

우간다에 온 지 일 년 정도의 적응 시간이 지날 때쯤 아이들에 대한 나의 관심과 고민을 알았는지 주일학교를 맡으신 사모님이 어린이 사역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우리 부부는 현지 적응시간을 거치면서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어린이 사역 제안에 많이 당황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나는 마음에 쌓인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이 숙제를 하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2022년 말부터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나는 과감히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전에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올드 채플로 장소를 옮겼다. 어린이 사역리를 비롯하여 글 없는 책과 복음 팔찌 등으로 아이들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과 함께 전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1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500명까지 급속히 늘면서 우리 쿰비대학교 학생들을 교사로 대거 영입하여 분반 공부를 도입했다. 성경암송대회, 찬양경연대회, 성경캠프, 세족식, 달란트 잔치 등 내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면서 경험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일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힘을 다해 섬기고 싶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개별적인 사랑과 관심을 주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설교를 맘껏 풀어내지 못하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돕고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나의 기도제목이 되고 있었다.

나의 이런 부담감을 아신 주님은 '도서관 프로젝트'로 나를 크게 격려해 주셨다. '독서가 최고의 교육'이라는 나의 신념은 오랜 경험에서부터 왔다. 나는 일찍이 독서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가급적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을 독려해 왔다. 교과서조차 없이 공부하는 우간다에 책만큼 가치 있는 교육 도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한국에서 책을 가져오고 싶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요청했지만 모으는 일만큼 운송비도 만만치 않아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이곳에 단기선교를 온 후배에게 돌아가 책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간증과 은혜가 넘치는 사연을 담아 결국 올해 9월 컨테이너를 통해 2000권 이상의 책이 도착했다.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이 없는 이곳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100개의 최고급 오카리나가 함께 도착했다. 주님께서 하시

는 일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그저 나는 꿈만 꾸며 바라고 있었을 뿐인데 주님이 친히 사람을 붙이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일을 이루셨다.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적은 물량의 도서지만 교회 한 칸 사무실에 책장을 짜고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이제 방학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1월부터 독서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오카리나 집중반도 개설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성경 공부 시스템이 자리를 잘 잡아 모든 아이들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수도에서 6시간이나 떨어진 가난하고 소외된 쿰비 지역에서 독서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기를 구상하며 환경과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고, 성과를 내던 사역을 접어두고 전혀 예상치 않은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고민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은 지난 20

여 년간 외쳤던 다음 세대의 사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긴박함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올린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20세 미만인 젊은 나라 우간다에는 한국교회에서 그토록 보기 드문 아이들이 차고 넘쳐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우간다이지만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지금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보면 우간다의 다음 세대가 물질문명에 휩쓸리는 것은 10년도 채 안 남았을 것 같다는 절박함이 있다. 아직은 순수하고 순박한 우간다의 어린이들이 마스크와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장차 이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사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세대가 될 것을 꿈꾸고 확신한다. '카무카무 우에-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는 아름다운 연합의 정신을 가진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에서 나의 희망을 아이들에게 걸어 본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역

이복애 선교사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다문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계획도 생각도 없던 나에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은 우연히 시작되었다. 부모 중 한명은 한국인, 한명은 베트남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인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한글이 어려워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는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의 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2명의 아이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비교적 순하고 잘 따라와 주어 감사했고, 한 해가 지나며 아이들의 수도 4명~5명으로 늘었다. 마음이 맑은 저학년이었고 복음에 반응도 했으며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친구도 있던 아이들이었다. 아빠의 반대로 교회에 출석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어 원하는 친구들은 집으로 오게 해서 약 2년간 주일 오후에 한 시간 정도 성경 읽기와 활동을 했다. 지금은 아이

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부모님의 반대로 주일 모임은 아쉽게도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나를 성장하게 했던 기억에 남는 아이들을 소개하고 싶다. 다문화 가정인데 아빠가 한국에 돌아가서 아빠를 기다리며 엄마와 갓 태어난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한국말은 잘 하지만 늘 부정적이고 공부를 왜 해야 하나며 반발이 심했다. 엄마가 작은 식당을 하며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식당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엄마와 환경에 대한 불평을 표출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이곳에 오곤 했다. 받아쓰기와 수학 문제를 풀어 보자고 하면 기분에 따라 책을 찢어버리고 던지며 소리 지르기도 했다. 어느 날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를 다니느라 화가 나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빠지지 않고 계속 왔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 엄마에게 제가 가르칠 수 없으니 보내지 말라고 했다. 아이의 엄마는 사정을 하며 베트남


학교에도 보낼 수 없으니 제발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고 나는 아이 엄마의 간절함이 느껴져서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다. 그 후 2학년이 되었을 때 주일이면 아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 따돌림 등이 화나고 억울하다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 때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꼭 안고 기도해주면 아이는 밝아진 얼굴로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안도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저 아이가 커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고 나 또한 그 훈련의 필요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3년을 나와 공부하고 다른 곳으로 간 후 몇 년이 흘러 우연히 나를 만나면 반갑게 뛰어들어 안기며 말한다. "선생님, 저 지금도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학교 공부도 잘 따라가요, 노래도 배우고 있어요. 그 때 공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며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몇 년 전에는 믿음(가명)이라는 남자 어린이와 한 살 어린 여 동생 남매가 왔다. 아빠가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 못했다. 이 아이들은 공부할 때 집중을 못하고, 고집이 세웠으며 설명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적응이 어려워 나에게 온 것이다.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을 즈음이면 방학이 시작되고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베트남어만 사용하다 개학 즈음 돌아오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했다. 남매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나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아이를 가르치며 나의 인내 없음과 화를 내며 큰 소리를 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깊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울기도 많이 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적절한 때에 나의 어린 시절의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 했다.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며 반응을 보이곤 했다. 어느 날은 내게 와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나쁜 마음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면서 울었다. 그래서 함께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때 해 맑게 웃으며 말하기를 "선생님, 공부는 하기 싫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렇게 돌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으며 오히려 내가 힘을 얻고 있음에 감사했다. 몇 번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이들로부터 얻곤 했다. 동생에게 최근 들은 소식은 오빠는 지금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한다는 말에 마음 아프지만 "오빠는 예수님을 엄청 좋아해요"라는 말에 감사하며 믿음을 기도로 올려드렸다.

아이들은 질문한다. 선생님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중에 전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왜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를 해야 해요? 힘든데 왜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1.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임을 말해준다.
2. 너희는 두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나아가 세계가 너희들의 일터가 되어야 한다.
3. 너희가 먼저 감사하므로 행복하게 살고,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해준다.

지금은 방과 후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 보내주신 아이들과 함께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가정과 자녀를 두고 믿음을 지키는 주변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지키며 씨름하는 가정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게 되며, 내 삶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린다. 

돌아보지 않는 삶

최현희 선교사



모즈건은 20대 초반인데 벌써 5살인 딸이 있어 좀 놀랐다. 미용사가 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고 싶지만 제대로 된 신분증이 없어서 학원 등록을 하지 못한다. 사실 신분증 문제는 미용 기술을 배우는 데에만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프간 사람으로서 튀르키예에 밀입국해 살고 있는 데에다 자신이 아프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출생 신고가 자신이 나고 자란 이란에서도 되어 있지 않고, 부모님의 나라인 아프간에도 되어있지 않다. 이유를 물어보니 모즈건의 아버지가 딸은 집안일 돕다가 결혼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출생 신고를 하냐고 했다는 것이다.

모즈건은 오래 전에 이란으로 온 아프간 가정의 첫 딸로 태어났다. 이후로 여러 동생들이 태어났다.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아프간인들을 얹잡아 보지만 그것은 어른들의 일이었고, 아이들은 온종일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면 국적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프간인(人)인 것도 출생 신고가 되어 있

지 않은 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학교는 진학하지 못했다. 더 이상 뛰어다니지 않는 소녀가 된 친구들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둘 셋씩 짝지어 사뿐사뿐 걸으며 중학교를 다닐 때, 모즈건은 옆집 지하실에 차려진 작은 봉제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마주치기가 부끄러웠지만 감히 아버지에게 학교 다니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한번 내린 결정을 절대로 뒤집지 않는 분이였다. 그렇지만 16살이 되었을 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간에 있는 나이 많은 친척 아저씨에게 시집가라는 말에는 절대 따를 수 없었다. 많이 울고 많이 맞았다.

모즈건은 재봉틀을 돌리다가 목이 아프면 고개를 들어 천장 가까이 난 창문을 통해 작은 하늘을 쳐다봤다. 작은 자리에서는 높게 난 창이지만 지하실이라 가끔은 지나다니는 차의 바퀴나 사람들의 발에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과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좋아하는 모즈건은 아버지의 뜻대로 시집가면 지금 보는 창문 크기의

하늘만큼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든 아버지가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 속을 가득 채웠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술레이만에게 부탁하면 될거야.' 매일 새 일감을 갖고 오고 끝낸 물건을 갖고 가는 그는 모즈건이 아는 유일한 바깥 사람이다. 결심이 서니 더 이상 심장은 쿵쾅거리지 않았다. 다행히 술레이만은 모즈건을 멀리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미처 생각지도 못한 조건을 말했다. '나의 여자가 되어야 해.' 그는 열 살 이상 나이가 많았지만 아버지뻘 되는 친척보다는 훨씬 젊다. 그가 데려갈 곳은 어디가 되었든 이란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십대 소녀가 감당하기 무서운 밤을 보내고 모즈건은 집과 가족을 떠났다. 처음에는 고속버스를 탔다. 이후 미니 버스를 타고 합승 택시를 타고 다시 미니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태어난 도시를 벗어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낯은 여인숙을 잡고 며칠을 묵었다. '여기에서 살게 될까?' 술레이만은 내일 국경을 넘어 튀르키예로 간다고 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 둘 외에도 수 십 명이 함께 작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걸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만 무리는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걸었다. 국경수비대에 들키지 않도록 어두운 날, 깊은 산, 짙은 나무 그늘 밑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숨도 조심조심 쉬며 몇 시간이고 걸었다. 아이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겁에 질릴 겨를도 없이 달리듯이 어른들의 속도에 맞췄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젊은 청년들이 어깨에 매고 걸었다. 모즈건도 눈을 헤치며 남자들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실신할 것 같은 와중에도 달빛도 없는데 반짝이는 눈이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거의 10시간을 죽을 힘을 다해 걸어 동티기 전에 산속에 있는 판자 집에 도착했다. 얇은 합판으로 벽을 치고 바닥엔 걸레 같은 카페트가 깔려 있는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에 수 십 명이 남녀 구분 없이 전부 들어갔다. 밤새 걷느라 쉬지도 않고 용변도 못 보고 물 한 모금 마실 겨를도 없었기에 냉기가 전혀 가려지지 않는 곳이라도 앓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왈칵 안심이 되었다. 시커먼 주전자에서 차가 끓고 있었는데, 한 잔 값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모즈건은 딱 한 잔을 샀다. 춥고 목마른 몸

을 위해서가 아니라 밤새 눈 산을 걷느라 젖어서 얼어버린 발을 녹이기 위해서. 다시 해가 질 무렵 하룻밤 더 걸을 준비를 하면서 엄마들은 젖먹이 아이들이 울지 않도록 수면제를 먹였다. 밤을 이용하고 산길을 이용했지만 결국 튀르키예 국경에서 잡혀서 난민 캠프로 보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연고도 없고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들어온 나라에서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한번도 가져 보지 못한 (난민)신분증이 생겼다.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에 들어온 난민에 대해서 거주 도시를 지정해 준다. 난민들은 거주지역을 벗어날 경우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군가는 이런 행정을 두고 거대한 감옥에 난민을 가두는 것이라고 하지만, 모즈건은 숨통이 트이는 자유를 느꼈다. 작은 도시이긴 했지만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고 차도르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미용실 보조로 일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배워 나갈 수 있었다. 혼자일 거라 생각했던 외국 생활이었지만 이웃에는 이란 사람들과 아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모즈건은 그들의 특별한 친절에 놀랐다. 임신을 알았을 때 친정 식구가 되어 자신을 돌봐 주고 출산 때는 병원비와 산후조리, 아이용품 준비해 주었다. 기독교회는 모스크와 많이 달랐다. 장소는 좁고, 멋진 카페트와 색유리, 높은 단상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악기와 앞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들, 크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처음 느껴보는 생기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즈건은 그들처럼 진심으로 웃고 싶어 졌다. 무엇보다 태어난 딸이 넓은 하늘을 보며 크게 숨을 쉬며 큰 소리로 노래하며 살기를 바랐다.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가더니 술레이만이 변했다. 그리스로 밀입국해서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술과 담배가 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았다. 생활비를 주지 않아 월세가 밀렸다. 모즈건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술레이만에게 여러 번 졸랐지만 자꾸 미루기만 했다.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했다. 모즈건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일을 할 수 있었다.




무작정 집 근처 유치원을 찾아갔다. 원장 선생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했다. 출생신고가 없다고 거절당했지만 여러 번 찾아가 부탁한 끝에 입학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부탁한다고 입학할 수 없었다.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다시 술레이만에게 말했을 때 그는 모즈건을 때렸다. 놀라고 무서웠지만 딸이 자신처럼 작은 창문 안에 갇히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

맞는 날이 많아졌다. 문득 엄마가 그리워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위로 받기를 기대했는데, 동생과 엄마의 목소리는 원망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약속된 결혼을 깨고 도망가는 바람에, 결혼하기로 한 상대 집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모즈건 집안에 복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했다. 모즈건 아버지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상대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자신의 딸을 직접 찾아가 죽이겠다고 선포했다고 했다. 온 가족이 짐을 싸서 모즈건을 찾겠다고 국경을 넘었다. 그러다가 남동생이 이란 국경에서 수비대의 총에 맞아 뒤꿈치를 다쳤다. 이 모든 일이 모즈건 탓이라고 했다. 눈 앞이 캄캄해지고 온 몸이 떨렸다. 자신이 있는 도시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와서 자신과 딸을 죽일 것만 같아 한시도 딸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풀고 기쁘게 노래하게 해주었던 이웃을 찾아갔다. 그들은 떨림이 멈추지 않는 모즈건과 딸을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다. 무서워질 때마다 그들이 가르쳐 준 노래를 부르고 그들처럼 기도했다. 자신에게도 딸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구했다.

술레이만이 딸을 때렸다. 모즈건은 주저하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교회 지인 집으로 피신했다가 도시 외곽 공장 지대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집을 구했다. 지인들 말로는 술레이만이 처음엔 이사한 곳을 찾으려 했지만 곧 그만 두었다고 한다. 술레이만이 집에 있을 때 자꾸 자기 뒤로 숨기만 하던 딸이 이사 오고 난 후에는 악몽도 꾸지 않고 거실에서 조잘거리며 잘 논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두 시간 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는 모즈건을 찾아가 만날 때마다 들은 것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모즈건은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엄마아빠 품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뛰어 놀던 시절이 그리지 않느냐고, 이란에서 집을 떠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모즈건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결심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내 딸도 참 사랑을 알아가길 원하기에 지난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MVP 행사 및 광고

동참해 주세요

01 벤처선교훈련(School of Venture Mission)

- ◆.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벤처선교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고자 하는 선교관심자, 헌신자들을 기다립니다.
- ◆. 지역교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문의 : 김계바선교사(02-703-1215)

02 ON 열방콘서트 매월 셋째주 목요일 7:30

- ◆. 온라인으로 업그레이드된 ON 열콘.
- ◆. 선교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열방의 소식과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03 Favor Baloch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7:30

- ◆. 발로치족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04 타사모(타직을 사랑하는 모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7:30

- ◆. 타직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종민 (단기선교사)

(사사기 6:11-12) ⑪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⑫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을 때, 저의 마음은 본문 속 기드온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공인 신학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려 노력했습니다. 청년부 리더부터 전도폭발 교사로 섬기며 주님을 섬기고 많은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부 리더로 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 못한다는 생각에 낙담하고 탄식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는데 저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 모습에 지쳐만 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일상에 매몰되어 광대하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과제와 시험, 성경 공부 인도와 심방, 여러 모임 인도 등 여러 일에 치여 정작 주님과 교제 시간에 소홀히 하고 제 생각과 경험으로 주님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갑작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포도주 틀 안으로 숨어버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자 저도 기드온처럼 당황했습니다. 큰 용사는 커녕 두려워 숨기 급급했던 기드온처럼, 선교는 커녕 교회의 청년 지체들도 온전히 품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맞을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 날을 기도하면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저 또한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앞으로, 어쩌면 선교지에서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선교지에서도 저는 한계에 부딪힐지 모르며, 일상에 함몰되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자녀이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저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저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작으나, 주님께서 동행해주시기에 담대히 이집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우원빈 (단기선교사)

저는 2025년 3월에 약 10개월간 이집트로 단기선교를 가게 된 우원빈입니다. 짧은 글을 통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제가 이번 단기선교를 가게 된 과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서서히 조금씩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국내 선교 및 해외 아웃리치 등에 참여하면서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가졌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체에서 가깝게 지내던 형제가 단기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현지 선교사님도 그 형제에게 "혹시 함께 올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같이 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기 전에 기회가 되면 단기선교를 가고 싶었기에 그 형제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단련해주시는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욱 보게 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의 소식을 들은 공동체의 지체들과 아직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받은 소명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 중에 받는 훈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MVP 선교단체에서 받은 SVM 훈련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해 배우고, 전방개척 선교에 대해 알아가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더욱 선교적 소명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활하며 만날 하나님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땅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MVP소식]



‘속았다’에서 소망으로

훈련생 김지희

‘속았다’... 선교 훈련을 권유받았던 지난 가을, 저는 깊은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별이 먼지만큼이나 많아 아름다웠다는 낯선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분명! ‘여행’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에 기인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설레던지요. 그런데 선교라니. 찬물이 끼얹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게 무릇 선교라 함은, 험한 산과 바다 끝도 괜찮다고,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나를 보내주오 부르짖는 홀로하신 분들의 뒀. 나 따위는 감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일. 좀 더 솔직히는... 전혀 말고 싶지 않은 사명이었거든요. 기대도, 기쁨도 없이 그렇다고 마땅히 거절할 핑계마저 없어서 마지못해 결국 MVP선교회 SVM의 ‘훈련생’이 됐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 매서운 찬바람에 움츠리며 훈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제 자신을 매우 원망하면서 말이죠. ‘속았다!’ 선교 훈련이 한창이던 강의실, 나는 평신도라며 선교와 선을 긋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했던 그간의 제 편견들에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선교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선교사의 역할, 선교의 역사, MVP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훈련생 개개인들의 선교에 대한 생각들까지.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새로이 마주하게 된 선교. 이제 제게 선교란, 그 지역의 문화를 읽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함에 기인하지 않고, 그곳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려는 겸손함이 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하여 극적인 회심으로 당장 선교지로 떠나겠노라 결심?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훈련생분들의 뜨거운 열심을 경험하며,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제가 발 디디게 될 곳에 대한 막연한 소망도 생겼으니 감사할 따름이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입니다.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VP



선교에 대한 마음의 벽이 낮아지다

이미자

선교훈련을 마치며 드는 생각은 기쁨과 아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나의 시야가 더 넓어졌다는 기쁨과 그분의 일을 알기에는 5일이 너무 짧아 아쉬웠습니다. 나에게서 선교란,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가기위해서 오랜 훈련을 받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관심 밖 분야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선교가 궁금해졌고 어릴 적 봉사활동을 했던 것처럼 선교지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선교단체 간사였던 직장동료와 나누게 되었고 직장 동료는 나를 위해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동안 선교사님께 느껴지는 건 그곳이 비록 척박하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천국이 따로 없겠다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혼을 했고 아직 손이 가는 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허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 때에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마음을 접어야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분이 선교 훈련을 권하였고 그냥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생이 겨우 3명인 소규모 훈련이라고 들었는데 강의실은 10여명의 훈련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낮에 시간을 내어 오는 그들의 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한 저와 달리 참석한 모든 이들의 선교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져 덩달아 저도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선교 교육을 받기 전에는 선교는 높은 벽 같았는데 훈련을 마쳐갈 즈음 그 높은 벽은 낮아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구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와 가족과 나라와 열방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초대 받아 함께 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쓰임 받을 준비 완료!! MVP

한빛 누리/중증무권역

위구르 사랑교회: 여러 사역자들과 연합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인 대다수가 위구르인이어서 한국인 사역자들은 위구르어를 사용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빛 선교사는 함께 사역하는 위구르어를 잘 모르는 사역자들에게 위구르어 문법을 비롯한 예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숙사: 지방에서 대학진학을 위해 A시로 온 학생들에게 제자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가족소식: 첫째 마루는 미국 미시시피에 있는 벨헤이븐 대학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라는 약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산하는 12세 소년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리선교사는 1년 반전부터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화목하며 성숙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박국/아랍권역

2024년 크리스마스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서 아들 사무엘과 함께 보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현지에 새로 등록한 회사 'Y Linkers'의 서류 작업과 거주비자 재신청을 합니다. 새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컨설팅과 언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이곳에 오려는 가정들을 위한

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재정을 위해서도 손 모아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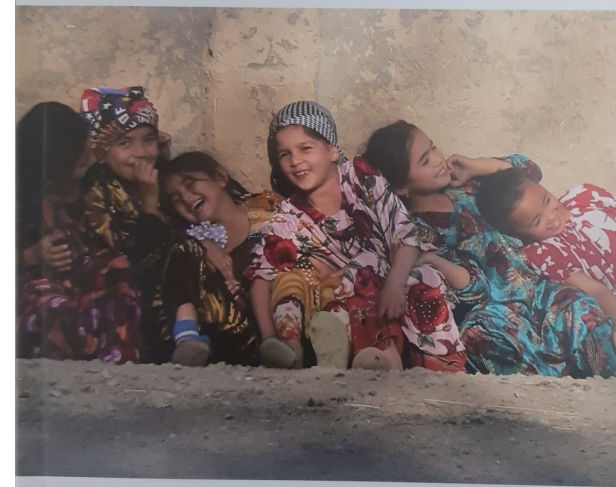
전빌립 루디아/중증무권역

안식년을 가진 후 저희 가정에 가장 큰 변화는 루디아와 세 아이들은 수도에, 저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D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명의 학생들과 자취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같이 사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터인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좋은 영향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은석, 은유, 은서는 두산베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자녀학교 SRA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국제학교에 비해 학비가 저렴한 편이지만 아이 한 명당 일년 학비가 \$3,500이어서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주께서 학비를 잘 채워 주시도록, 그리고 저희 가정에 꼭 필요한 차량 구입을 위한 비용도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루디아의 친정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마음을 모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유진/베트남 단기선교사

2024년 11월 19일 베트남 도착해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하늘숲교회와 함께 한베 가정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 공부와 숙제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 사역이 한베 가정과 아이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기도책자 소개

타지키스탄을 위한 52주 기도
소망의 땅,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한인 사역자 연합회

타지키스탄 한인사역자 연합회는

타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한국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4년 제작된 중보기도 책자의 증보판을 13개의 핵심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52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1년간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M i s s i o n • V e n t u r e • P a r t n e r s

M i s s i o n • V e n t u r e • P a r t n e r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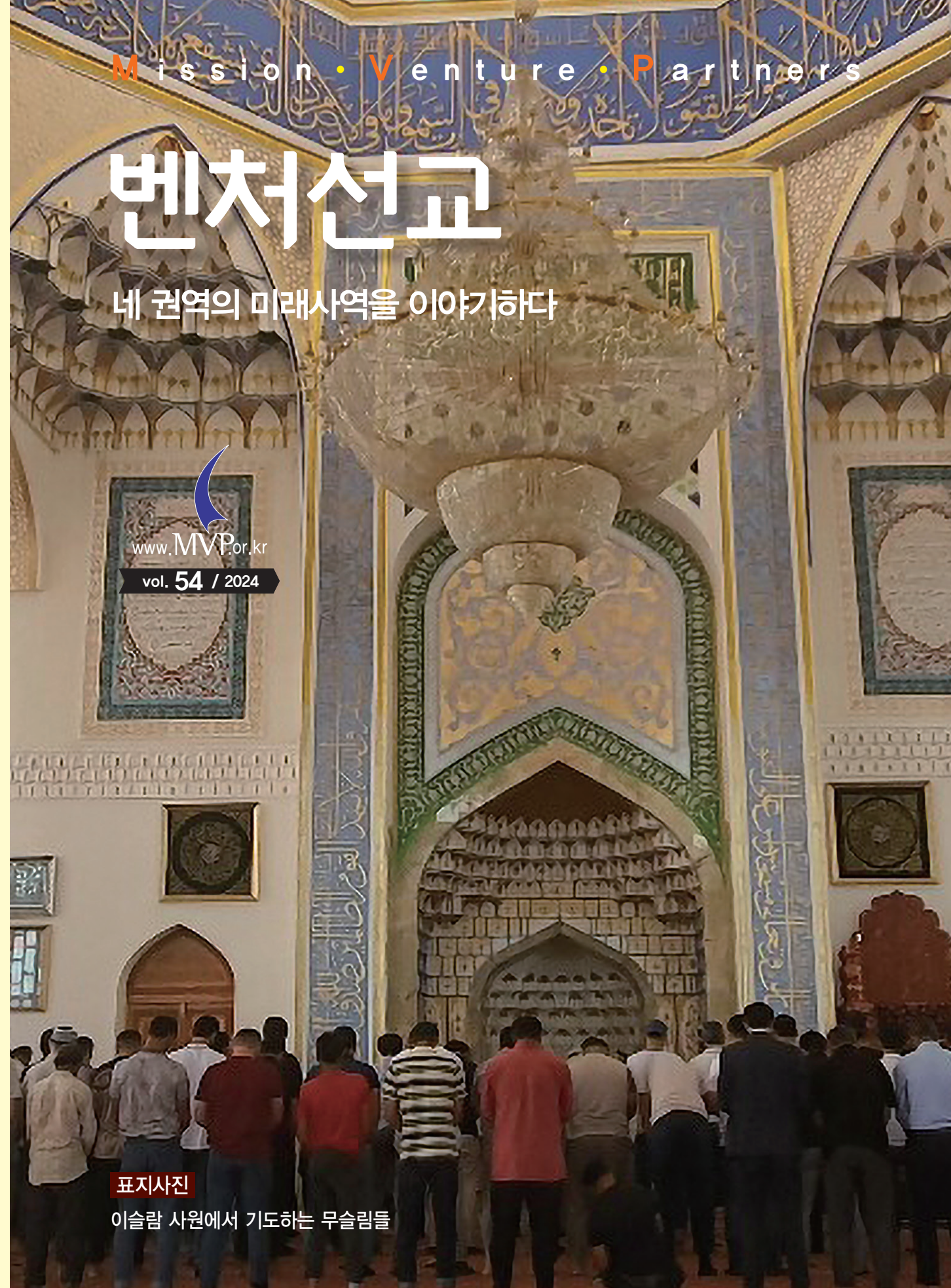
벤처선교

네 권역의 미래사역을 이야기하다


www.MVP.or.kr
vol. 54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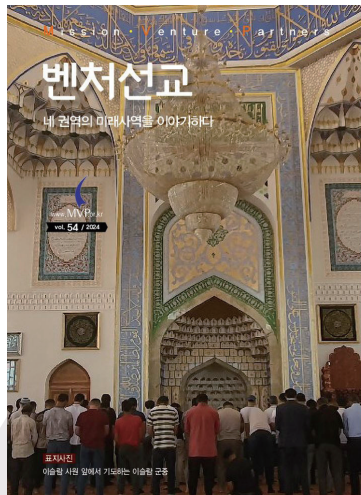
표지사진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무슬림들



Contents

벤처선교 (통권 54호) 2024



이 사 장 | 신동우
고 문 | 서동현, 지경준, 홍성원, 한정국
실행이사 | 한인택
권역이사 | 최석범
명예이사 | 최석범

대 표 | 이 길
멤버케어 | 김인애
벤처사업개발원 | 이응복
미 디 어 | 김기덕, 전세희
훈련동원 | 김계바
본부간사 | 이동호, 강유진

발 행 인 | 이 길
편 집 인 | 김인애
편집 · 디자인 | 김귀곤(윤디자인)

발 행 처 | MVP선교회
발 행 일 | 2025년 1월 20일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4 덕성빌딩 5층
전 화 | 02)703-1215, 팩 스 | 02)703-1216
이 메 일 | mvpok01@gmail.com
홈페이지 | www.mvp.or.kr



MVP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의 꿈을 품은 이들이 모험, 도전,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시작한 최전방개척선교회입니다.

• Mission • Venture • Partners

003 여는글

- 혼돈 / 이길 3

007 포커스

- MVP 2025 / 이길 4
- 선교에 있어서 교회 사역의 중요성 / 한수아 7
- 전화위복의 2024년을 돌아보며 / 허드슨 10

013 현장사역

- 전쟁의 화약고가 아닌
복음의 화약고, 레바논 / 신수아 13
- 미얀마 주일학교 / 누사베 15
- 카무카무 우에,
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 / 함윤숙 18
- 다문화가정 어린이 사역 / 이복배 22
- 돌아보지 않는 삶 / 최현희 24

027 MVP 행사

- 행사 및 광고 -
동참해 주세요 / 27

028 단기선교사 소개

-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 이종민 28
-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 우원빈 29

030 MVP 소식

- SVM 훈련을 마치며 -
'속았다'에서 소망으로 / 김지희 30
- SVM 훈련을 마치며 -
선교에 대한 마음의 벽이 낮아지다 / 이미자 31
- MVP 권역 소식 모음 / 32

사역에 동참하려면

MVP선교회와 함께

- ▶ MVP선교회 “벤처선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 ▶ MVP선교회와 함께 선교훈련에 동참해 주십시오.
- ▶ 벤처선교 네트워크에 참여해 주십시오.
- ▶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MVP선교사를 후원할 경우

- 가상계좌를 통한 후원 방법

후원자님의 계좌가 '국민' 은행이 아닐 경우, 선교사 가상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VP선교회로 전화하시면, 후원하시고자 하는 선교사님의 가상계좌를 알려드립니다.

- CMS (미션플러스)를 통한 후원 방법

후원자님의 계좌가 '국민' 은행일 경우, CMS(미션플러스)신청지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역별 프로젝트를 후원할 경우

프로젝트명	가상계좌번호(국민은행)	예 금 주
본부사역	012501-04-182812	MVP선교회
시리아난민	324790-29-000564	MVP선교회(시리아난민사역)
트라우마힐링	324790-29-000650	MVP선교회(트라우마힐링)
타직 생수교회	324790-29-000663	MVP선교회(생수)
키르기즈 숨겨진보화	324790-29-000676	MVP선교회(숨겨진보화)
이집트 M센터	324790-29-000366	이집트M센터
러브우간다	324790-29-000791	MVP선교회(러브우간다)
년짜교회 건축	324790-29-000168	MVP선교회(년짜교회 건축)
위그르족 사역	324790-29-000803	MVP선교회(한빛)
발로치족 사역	324790-29-000816	MVP선교회(favor Baloch)

- ▶ 중보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매일 정오 12:00 ~ 12:20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현장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MVP 홈페이지 사역에 동참하려면”을 참고 하시고
MVP 사무실(02-703-1215)에 문의 바랍니다.